2/1/26 Nobody Nothing
주일2부 핵심-녹취메시지 창39:1-5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들어가는 말씀
오늘 볼 말씀 Nobody Nothing이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1)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신다. 그것을 안보고 오직 한가지 보시는것이 있다.
2) 오직 –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얼마만큼 마음이 있는지 보신다. 이것이 마음에 준비가 되있는 사람은 정복을 하게 된다. 정복이라는것은 문제가 뒤집어져서 축복이 되는것이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이 가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제목 사실은 하나이다. 이것이 되어 져 있으면 자유하다.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해방받는다. 그정도가 아니고 정복해버린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발나다. 다른데 신경쓸것없다. 이것만 죽어라고 고백해라.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으로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는것이다.
3) 하나님소원은 하나 –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는것이다. 이것이 안되 있다면 이것이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연결되기 싫어하는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안되는 이유는 사단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는 과정중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4) Nobody Nothing이다 – 생각이 여기에 답이 있고 언약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한다. 여하튼 사단은 각종 방법으로 우리가 속게끔한다. Nobody Nothing이어야 한다. 지나고 나면 어려운 시절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다.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내용이다.

1. 요셉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1) 세상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한다. –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그렇다.
2)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 요셉의 속은 안그렇다. 이것이 아주 놀랍다.
3) 일어난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답을 가졌기때문이다. 이게 있으면 정복하는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서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하여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것이다. 이 거 하나때문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 놓은것이다. 성경중에 결론이다. 기도제목 한개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난뒤에 노예가 되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4) 노예가 되는게 오히려 축복이다. 오직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에 감사해야 한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가 우리의 경험이대부분이다. 요셉은 그게 아니었던것 같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딱 답을 낸것이다. 이거 과정이야 내가 실망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이다. 요셉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소리가 한개도 없다. 이것이 미리 알고 갔다는 확실히 받침이 된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미리 알았다고 하냐 증거가, 한번도 부정적인 소리를 한적이 없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이다. 한번도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런것을 보고 진짜 답을 안내고서는 불가능 한 일이냐 우리도 내나 같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언약이 들어와야 안흔들려진다.

2. 언약대로

1) 창39:2절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때문에 형통하였다고 했다. 확실한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2)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것이 내 안에 언약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깊은일에 내 마음이 들어간것이다.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바뀐것이다. 하는것만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것이 얼마나 귀한것이냐 믿은 사람중에 복음전하는사람 진짜 몇% 안되는데, 그런데 그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밖에서 복음전하는것이 기쁘고 감사고 행복이다. 계속 선교의 문을 열어 기쁨이고 감사이다.

3) 결국 결론은 성취되는 것은 말씀이다.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는것이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니 애굽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하겠지만 여하튼 노예로 잡혀간 자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것은 대단한것이다.

4) 진짜 작품이 나온것이다. 인생작품이 다 되기를 바란다.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일단 못말린다. 인생의 스탑이 안된다.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일을 없다. 영적으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날수있다. 물론 살아있는게 기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 내 생각에는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다 살고 난뒤에 보니 그런것 다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3. 문제를 보는 눈이 – 언약이 되어야 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일에 대한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러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것이다. 아직도 부족한것이 우리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가만히 되돌아 보면 계속 발전이다. 여하튼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셉은 그 눈으로 봤기에 부정적인 말을 안한것이다. 내가 노예가 된것은 언약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요셉의 시각이다. 그러니 불평 비슷한 소리가 한마디도 없다.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하려면 이 언약이 들어와 체질이 되도록 자리를 잡고 있어야한다. 말씀을 듣고응답되는줄 알고 또한번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언약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이런 과정의 시간이 될줄 믿는다. 완전한것은 없다. 그래서 이눈을 딱 가지고 문제를 보는 요셉,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를 나올수가 없는것이다.

1) 이유 – 언약을 가진자에게는 전부 언약적 이유이다. 노예가 된것도 언약적 이유, 권세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언약이 되면 무조건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는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가진자의 권세이다. 오늘 언약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전할 능력이 없겠는가?

조건이 없는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안에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이유가 조건이다. 이것이 요셉이다. 모든문제는 전부 다 과정이다.

2)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전부 다 그렇다. 안그런게 하나도 없다. 믿는 자에게 저주로 임하는 경우는 없다. 기도하면 그것을 역전시키는게 언약이다. 그게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다. 우리가 믿는게 이것이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것 아니냐 맞다. 구원이 뭔가? 죽음을 구원으로 역전 뒤집어 버린것이다. 죽었는데 영생이요 역전이다 안그런가 그게 그리스도 보혈이다. 그러니 어디든지 역전이요 죽어도 역전인데 안그런가? 여하간에 낙심 이런것은 이유가 없는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이상했다 억지 소리 비슷하고, 목사니까 말해서 성도들 뭔가 조금이라도 설득을 하려고 붙잡아 두려고 인간적인 소리로 들렸다. 조금 언약이 되서 깨닫고 난뒤에 깨달은것은 그것은 네 수준이었지 말슴을 전부 내 수준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하님의 역사로 내 영적수준이 올라가는것이다. 옛날메시지는 전부 다 그렇더라. 그때는 내가 들었어도 지나가는것이다. 10년 지난후에 깨닫고 보니 그때 말 다해놓았잖아.... 여하튼 필요없고 전부 과정이다. 문제가 문제로 남이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역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역전시켰다. 내게도 문제가 와서 소망이 갖게 된다는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다 결국 그리스도 이야기와 세계복음화 이야기 하는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고백해서 강해라 충성된 자를 찾아야돼 네 눈에 거기에 맞추어여야되. 제가 87년 89년중에 동삼제일 교회에 갔었다. 제가 류목사님을 83년에 만났으니 이후 6년만에 간것이다. 내 중학교 동기가 한명이 고신대학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대구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다. 류목사님 집회에 본격적으로 된것은 아니다. 나도 소문에 듣고 메시지 듣고 약국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별거 아닌데 들으면 은혜되니 가서 들어보라고 했다. 나는 잘 안다고 말했다. 그이후 가보았다. 그때에 목요일마다 공원에서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나도 가겠다고 했다. 어떤때는 그 이후로 까막득히 잊어버리고 5년이 자나갔다. 무섭더라. 지나고 난뒤에 깨달았다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딤후2:1-7이 세계복음화 전략이라는것이다. 충성된자를 불러서 내가 네게 분부한것을 전하게 하라고. 그당시에는 처음 들은 메시지이다. 그 단어를 안잊어 버리고 있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 이런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나는 영적군사, 경기하는자, 농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군사는 자기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결심 때문에 그런적이 없지만 사도바울은 가족이야기는 한개도 없더라. 세계복음화 한 사람이 가족을 버렸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을것이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도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병사로 모집을 받아도 자기일에 얽매이는자는 하나도 없다고 써놓았다. 잊이 않겠는가? 그 말은 나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란 말이다. 그게 복이고 정상이다. 네가 만일 진짜 이렇게 산다면 정복하는것이고 세계복음화 하는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성경대로 축복하실것이다. 우리가 복을 못받는 이유, 응답이 지속안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원에 올인이 아니야 내 마음을 반으로 나누었다. 반은 하나님께 드려요. 반은 내가 써요. 어떤사람은 8:2가 다양하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라. 네가 이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을 줄것이라고 할 만큼 이런 부분에 진짜로 한것이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시간표가 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게 절대 아니다. 소망을 위해 하는것이다. 언약을 잡고 진짜 기도를 하는것이다. 이것 마져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축복해주시는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도 성경처럼 축복해주신다. 모든것 과정 저주 없다.

2)과정-계획 – 맨날 하는 소리가 기도해라.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되는게 아니고 되어지는게 있다. 그게 우리의 시간표이다. 그것을 딱 잡고 안 놓치는것이다. 그러면 한단계씩 올라가는것이다. 그리 된다. 류목사님도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았다 우리 보다도 훨씬 더 고생 많이 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 받지 않았는데… 30-40년 계속 사람들의 비난속에.. 계속.. 여하튼 전부 축복속에 있다. 보고 나면 알고 아니냐, 시간지나면 알게된다… 이것이 고정이다.

3) 축복-권세 마음에 언약으로 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것으로 기도하면된다. 주일날 집에 가면 온데로 생각이 돌아다니잖은가? 그런데 어느날 시간표가 오면 그리 안하고 돌아다니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시간을 주신다. 그때부터 하나가 조금 열려서 빛이 딱 들어가는것이다. 이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저렇게 오래 걸려서 치유가 안되나 마음이 안되기도 한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뒤집으면 좋을텐데.. 이것이 언약적 축복이다 나중에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4) 전부 영적문제이다. – 이것 모르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난다. 그냥 관계없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우도 있는것은 하나님 자녀이니까 옆집에 불신자랑 비슷한데 응답이라고 한다. 어낙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문이 계속 열린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응답이 된다. 문제 해결되면 증인되는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데 내 속에 자꾸 바뀌어 간다. 언약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 간다. 정말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이 복음안에 부르셨다.

4. 결론

1) 언약- 문제를 누린다 정복한다는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게 아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정복이자다.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간다.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었다. 아닌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원래 그렇다. 요즘은 어떤가?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보였지 이스아엘을 나았으니 그래도 필요없고 약속한 그대로,,, 예를 들자면 꽉찼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되는것이 기본이고 근본이다. 그러면 나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것들이 바뀐것이다. 드디어 내하고 하나님하고 갈등이 없다. 전에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늘 왜 그러냐고 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법이 통했다. 성경이 표본인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틀림없다 기도제목 한개뿐이다. 하나님 나도 그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2) 답이 난 사람은 문제 때문에 사명이 중단되지 않다. 하다가 못해도 마음에서 중단은 아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로 표현한것이 300%, 죽을때까지 찾아가는것이고 결국 거기에 도달하는것이다. 우리가 하는것은 하나님이 하시에 그렇다.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026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3)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인도의 방법일 수도 있다. 예)문제가 있어야 기도한다. 없으면 놀고 싶다 하기 싫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기 싫은것은 절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내가 만든것 다 지나간다. 문제 있는것은 마찬가지이다. 전부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렇다. 오늘도 오만말 다 했다. 그러나 한개 딱 기억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언약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다. 물론 출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이 되는 축복을 주신것이다. 사도바울이 만일 이 부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을것이다. 그 문장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수시로…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내 언약이 되었다고 해도 능히 은혜가 된다. 그래도 구태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써놓은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말씀으로 하나가되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르 기도드립니다. 아멘@